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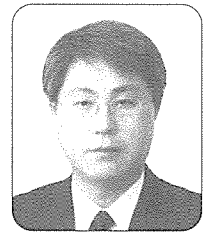
# 2006년 동물약품 결산과 향후 전망

## 1. 머리말

계속되고 있는 동물약품 업계의 불황으로 2006년도에는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였으나 3/4분기까지 전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각 분야별 축산경기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물약품 업계만이 2000년부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들어 거세게 여론화되고 있는 축·수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가능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축산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배합사료공장들이 무약제 첨가사료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배합사료제조용 사료첨가제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배합사료첨가용 첨가제의 사용규제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각 업체에서 농장 등에 직접 판매하는 필드 판매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영업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필드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도부터 영양제를 위주로 한 사료첨가제 시장이 보조사료로 이원화됨으로써 동물약품 시장의 상당 부분이 보조사료 시장으로 대체됨에 따라 동물약품 매출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제조업체의 경우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GMP시설 구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판매점들의 OEM식 물품 주문과 가격인하 요구는 그야말로 제살 깎아 먹기식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신익철 전무  
(사)한국동물약품협회

있으며 품질보다는 가격만이 거래 조건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 가. 필드시장은 정체 그리고 사료공장 판매는 부진

동물약품 시장은 3/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공장 판매부분이 24%의 감소를 보이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공장 판매 부진은 1월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필드 판매의 경우는 하반기부터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국내 생산 제조업체 부진 두드러져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가 더욱 두드러져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가 감소하였으며 이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료공장 판매가 약 22%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료공장 판매의 약 80%를 차지하는 항병원성약의 매출액은 약 16% 감소하였으나 판매량 면에서는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수입 완제품 매출 소폭 증가

수입 완제품 업체의 경우 1/4분기 호조에 이어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필드 매출액이 약 5%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 전년에 비하여 3/4분기까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 완제품의 시장 유지는 백신 등의 생물학적제제가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라. 양돈·양계용 약품 매출 감소

축종별 약품 매출 동향을 보면 축우용 제품은 전

년도 수준이며 양돈용 약품이 약 8%, 양계용 약품이 약 22%가 감소하였고 수산용 약품의 경우도 약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은 2006년도 양계용 사료 생산량이 약 10% 감소하고 양돈용 배합사료에 사용하던 배합사료 제조용 사료 첨가제가 첨가지침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배합사료에 첨가되지 않고 필드로 판매되어 양축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이외에 일반 영양제나 항생물질제제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2007년의 경우도 새로운 영업 필드를 개발하거나 수출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노력 없이는 필드 제품의 가격경쟁과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규제와 같은 약재를 해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 전 망

향후 동물약품 산업의 전망은 여러가지 난제가 많지만 대외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물약품이 유해물질로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가 사용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말 뿐인 휴약기간 준수자가 아니라 축수산업과 국민들의 보건을 위하여 휴약기간만은 필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 잔류와 내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좀 더 어려운 문제인 내성문제는 언론의 무차별한 보도내용과는 달리 동물용 항생제의 내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축산농가나 관련기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수산용

항생제의 내성이 인체 내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있는 약품을 축산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동물약품의 효과를 의심받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동물약품업계에서 축수산분야의 내성을 줄이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항생물질 보조요법제의 개발에 주력

사료첨가용 항생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경 규제정책이 언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하여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이 일방적으로 좌악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아직까지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항생물질 대체용 보조사료(?)가 우후죽순 격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무방비 상태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은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사 동물약품으로서 동물약품의 위상만 실추 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한 일이므로 이러한 제품들의 개발에 동물약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제품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

최근 농림부에서는 규제완화의 한 방안으로 농림부령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들에 대하여 검역원 허가(신고) 제품에서 자율적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 신고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제도 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검역원에서 동일 성분 함량의 제품을 쉽게 허가해

줌으로써 동물약품 가격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비등한 만큼 협회에 신고하게 될 제품들의 경우 기존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동물약품 업체들도 카피(copy) 제품보다는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주력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약품 사용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논란 중에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한 단·장기 영업정책을 수립하고 대체약품이나 영업정책의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53종에서 25종으로 규제가 강화된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의 경우도 지난 감축조치에 이어 바로 추가 감축방안이 수립되어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은 내성 수준이 높게 모니터링되는 사료첨가제들이 우선 감축대상이고 다음으로 인체약품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 등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에는 유럽과 같이 구충제나 항콕시딕제만 배합사료 첨가를 허용하고 일반 사료첨가제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서 동물약품은 처방제나 필드 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타진하고 대체약품 개발에 주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물약품 업계의 장기 불황 사태는 대내외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꾸준하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